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 편집장 임수진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 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심층] 2면
세민전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획] 4면
상상하는 우리학교

[기획] 5면
말 많고 탈 많은 미네르바 인문강좌

[사설] 8면
중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 공자아카데미

베일 벗는 다목적동

우리은행 부지에 '동문화관 및 다문화센터' 건축

우리학교 정문 건널목 우리은행 부지에 '동문화관 및 다문화센터'(이하 센터)가 세워진다. 정확한 시공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센터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건물(현물)을 기부받으면서 짓게 됐는데, 기업으로부터 학교 주변에 교육용 부지를 기증받은 것은 우리학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 건물은 재단, 동문화, 학교의 합의 하에 동문화관 및 다문화 센터로 짓기로 결정됐다. 건물은 최대 15층 높이로 시공되며 우리은행과 동문화관을 위한 일정 공간과 다문화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이러한 공간 외에도 건물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다. 김유경 대외부총장은 "센터 건축이 외대 타운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고 해석해도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이 센터를 짓게 될 건설 회사를 정하는 일과 나머지 지금 조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우리학교가 투자할 정확한 예산은 재단 이사회와 논의하고 있다.

센터는 말 그대로 '다문화'와 문화 융성을 위한 복합 센터다. 단순한 공간적 기능 뿐 아니라 기식, 기숙,



▲동문화관 및 다문화센터가 건축될 예정인 서울배움터 정문 건널목 앞 우리은행 부지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연구적, 복합적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물론이고 외국 학생들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함한 60, 70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센터 안에서 학생들이 창업카페 등을 열 수도 있게 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내 공간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논의하고 공론에 부쳐 학생들의 권리장전과 학교의 수입 문제 차원에서도 어떤 형태의 배정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재단, 동문화, 학교가 의견 일치를 봄야 한다.

김유경 대외부총장은 "이번 센터는 사실 숙소동의 개념과 다문화 센터의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화'를 자랄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다며 주민의식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경우 발전협력팀장은 "최첨단 아이디어로 다른 대학이 전혀 시도하지 않은 융합적 공간을 만들겠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른 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한 만족스러운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혜 기자 iron90@hufs.ac.kr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공표 논란 일어

지난 9일 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규정'을 게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심위 규정을 학교와 학생 측이 합의해 확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의 합의와 달리 학교는 총학생회와의 결 과정 없이 규정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게재된 규정에 따르면 학생 측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은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해 까지 관례적으로 등심위는 학교 측 대표자로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양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이 참석하고 학생 측 대표자로 양

배움터 총학생회단이 참석해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새 규정대로 진행될 경우,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이 동수가 아니어도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 위원이 참석하지 않거나 학생위원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새로 책정된 등록금 액수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 또한 학생 대표 선출권도 학교에 위임하게 돼 학생 측이 불리하게 된다.

이에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서양어·노어 12) 총학생회장은 "2013년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위원 30% 이상이 등심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당연한 학생

의 권리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 미합의 규정에 대한 전면 재논의 요청의 건'으로 부총장실, 기획조정처장실, 학생처장실에 공문을 발송했고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행동 방향을 합의하는 등 규정 변경 방안을 촉구했다. 결국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단-부총장 면담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등심위 회의에서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하여 기존 학생 측의 안을 요구했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서울배움터 인터내셔널 프랜쉽 데이 열려

이번 달 15일 서울 배움터 잔디광장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행사인 인터내셔널 프랜쉽 데이가 열렸다. 인터내셔널 프랜쉽데이는 우리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과 화합을 위한 행사다. 이 날 잔디광장에서는 사물놀이파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 국악공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한글 붓글씨쓰기, 널뛰기, 투호던지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배우고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학생회(ISO)에서 활동 중인 최광호(사회·정의 14) 군은 "한국과 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뿌듯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제학생회와 인터내셔널 프랜쉽 데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박은혜 기자 iron90@hufs.ac.kr

<http://www.skyrd.co.kr>

Skyroad Express, In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A동 2101~2102호

대표이사 김 영 찬(러시아어80)



강강술래를 언제부터 쳤는지 알아와야 하는 건가요?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의 가장 큰 축제인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개편된다. 세민전 준비위원회(이하 세준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민전은 테마를 가지고 역사적 순서, 즉 연대기에 따라 공연이 구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디션을 거쳐 가장 우수한 팀이 장식했던 피날레 공연이 사라지고 시간순서에 의해서만 순서가 결정된다. 또한 지난 해와 다르게 1부와 2부로 나누지 않고 각 학회 공연의 사이에 유래, 역사적 사실을 짧은 연극으로 소개한다. 세민전이 스토리텔링의 성격을 갖는 공연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낮에 이뤄졌던 행사 부스와 저녁공연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공연시간 역시 늦춰져 모든 공연이 저녁에 이루어진다. 지난해까지 18팀이 출전했지만, 이번부터 13팀으로 줄었다. 기숙사에서 공연장까지 버스를 운행하는 안 또한 의견 중이며, 만약 서울시청에서 공연이 이뤄질 경우 우리학교 홍보에 기여를 한 세민전 공연팀에게는 사회봉사수업 1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민전 공연이 개편된 원인은 공연의 완결성에 있다. 글로벌배움터의 세민전은 서울배움터의 월드뮤지페스티벌과 달리 학교 내부가 아닌 한강의 물빛무대 등 외부기관을 대관해 진행한다. 이는 외부인들에게 공연을 공개함으로써 학교를 홍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인철 총장은 지금까지의 세민전은 특정 한 주제 없이 이뤄져 공연들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며 세민전 공연의 홍보 효과와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세민전에 투입되는 재정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이에 세준위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큰 행사이자 전통인 세민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대적 테마를 제시했고,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공연으로 세민전을 구성함으로써 세민전 공연의 완결성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돼가는 5월에 세민전 공연의 세부사항이 변하면서 그동안 이를 위해 땀 흘려 준비해온 학회원들과 학회장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 윤소미(통번역·태국어 14) 태국전통민속춤학회 테짜오잉 학회장은 “지난해까지 세민전이 문제 없이 개최되다가 갑작스럽게 테마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며 “오랜 기간 동안 세민전에서 취온 춤인 태국 전통춤의 유래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본래 진행된 방식 보다 공연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뒤이어 한혜인(통번역·독일어 14) 독일전통민속춤학회 단천 학회장 역시 “많은 학회가 학기 초부터 이미 준비 중이던 세민전을 바꾸려 해서 당혹스러웠고 출전할 수 있는 팀마저 줄어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수현(국제지역·프랑스 12) 세준위원장은 “공연 연습 초기에 미리 테마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면 좋았겠지만, 세준위 역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학생들의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진 기자 90yoon@hufs.ac.kr

백용호 교수, 학생들과 만나다!



▲ 4월 17일 백용호 교수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학교는 4월 17일 오후 5시 30분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백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강에는 김인철 총장, 이보화 글로벌배움터 부총장, 이재원 글로벌배움터 교무처장, 윤성우 글로벌배움터 학생복지처장, 윤일동 글로벌배움터 정보지원처장, 김원희 글로벌배움터 입학부처장, 신정아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장과 400여명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참석해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백용호 교수는 특강에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성과 인문학 중심의 사고력”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예의를 갖추고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할 수 있는 인성의 기초가 튼튼한 인재로 거듭나야 하고, 인문학적 역사의 고찰을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한 ‘역발상’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김동석(국제지역·중앙아시아 15) 군은 “진로에 대한 고민 중 특강을 통해 나만의 길을 찾은 확신이 들었을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특강 후에는 본인의 저서 ‘백용호의 반전’을 직접 사인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신입생세미나 외대비전교육 특강’은 국내외 저명한 인사 및 학교 동문을 초청하고 있다.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대학생활 진로설계와 꿈과 비전설정에도움을 주고자 2014학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김현진 기자 90hyung1781@hufs.ac.kr

우리학교 개교 61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우리학교 개교 61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홍원표 서울배움터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이남주 동원육영회 이사장과 김인철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성수 기획조정처장의 학교연혁 보고, 이남주 이사장과 권순한 총동문회장의 축사 및 김인철 총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장기 근속자, 우수 교·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과 외대상 시상도 이뤄졌다. 이 날 김인철 총장은 “모든 외대 가족들의 학교 사랑과 현신에 감동을 느낀다”며 “우리 모두 오직 우수 인재양성과 학교발전을 위해 어울림의 미학으로 서로 소통하고 격려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솔트룩스와의 MOU 체결식 열려

지난 11일 우리학교는 국내 대표적 자연어 처리 및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인 솔트룩스와 다국어 자연어 처리 연구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총장, 조경순 산학연계부총장, 윤일동 정보지원처장, 최영수 연구산학협력단장, 남지순 언어인지과학과 교수와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남현규 그룹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솔트룩스는 우리학교에 스마트 데이터 공동 분석 플랫폼 BigO(빅오) 등 10억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기증할 예정이다. BigO는 솔트룩스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기계학습 기반 다국어 자연어 처리, 실시간 확장성과 안정성 빅데이터 자동 수집,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어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칭한다. 그동안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45개의 언어를 연구해 온 우리학교는 솔트룩스의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 다국어의 자연어 처리 연구에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외대와 솔트룩스의 산학협력은 자연언어처리, 빅데이터 연구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상통해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인철 총장은 산학협력의 계기로 함께하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학교가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연구해온 만큼 솔트룩스와 협력함으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가 이를 계기로 인문학적 소양과 이과적 소양을 모두 갖춘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솔트룩스는 MOU 체결 이후에도 자연어 처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박윤진 기자 90yoon@hufs.ac.kr

4.19 혁명을 기억하자

지난 달 18일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우리학교 4·19 민주혁명동지회가 주최한 4·19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4·19 민주혁명동지회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해 기념식에서는 장학금을 기탁해주던 회원들의 건강악화와 입원으로 장학금 수여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류제봉(영어 57) 4·19 민주혁명동지회 회장은 “4·19정신을 잊어버린 요즘 세대의 학생들이 안타깝다”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과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어났던 4·19 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윤진 기자 90yoon@hufs.ac.kr

델몬트니까!

델몬트니까!

농장에서 20분 이내에 부두가 있어서 이동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합니다
부두별 프리콜링 저장고는 과육의 온도를 6시간 내에 13도의 최적온도로 낮춰줍니다
델몬트의 전용선을 통해 5일 이내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맛과 품질, 델몬트는 믿을 수 있습니다.

[ISO 9001 : 2008 인증획득] 델몬트가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Del Monte Quality

세상 모든 과일의 꿀 - 델몬트
www.freshdelmont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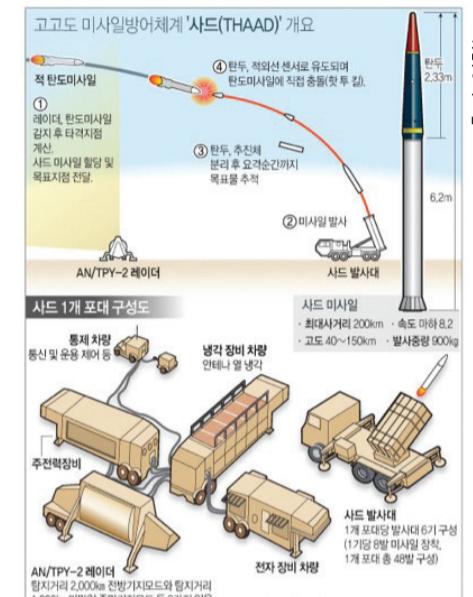
지구촌을 읽다

사드(THAAD), 중국의 '심기'보다 안보가 먼저다



양일국

『국제관계의 이해』(서울·글로벌) 강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 분과 자문위원



▲ 사드 개요

서 포착된다. 우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 군사령관이 지난 4월 15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 시킬 것”이라 강조한 것이 그 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압박을 받게 될 당사자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가세해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사드 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군사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뜻이겠지만 이를 두고 얼마든지 토론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친반의 주된 근거는 역시 이것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 또는 억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투자 대비 효율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 미사일을 견제하는데 있어 사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의 친반 논쟁을 보면 ‘사드의 효용성’ 보다는 미국 또는 중국에 대한 호불호·북한에 대한 인식차 등 핵심을 벗어난 논거들이 중심이 되거나 국제정치의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여고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국제정치의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으로는 첫째,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위협하지 않거나 아직 그 기술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 안보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치 이의 ‘10만 양병설’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던 조선조 동인(東人)들의 인이함이 연상된다. 한편 북한은 1950년에 남침을 감행, 남한에서만 189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서해에서 천안함 격침을 포함 네 차례의 해전을 치른 바 있다. 그러한 북한이 유독 미사일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사드를 도입하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한다는 주장도 중대한 오류를 전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해당 시기 소수 강대국들의 의지와 국력에 따라 그 양상이 결정되는 것이지 한국이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 정도로 동북아의 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륙과 해양세력이 늘 각축을 벌여왔다. 따라서 사드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임을 하나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국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자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문제는 있다. 한국·미국·일본, 북한·중국·러시아라는 두 ‘삼각 동맹’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사실상 모든 국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생존에 직결된 이른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은 택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사활적 이익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로 인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의 ‘비용’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넷째, 중국이 남한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무조건 두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선 사드는 하강하는 미사일을 잡는 방어 체계이므로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중국발 미사일이 사드의 견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사드에 장착될 600km 수준의 ‘터미널 모드’ 레이더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참여과학자 모임(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 운용중인 1,265개 위성 가운데 미국 위성만 528개이며, 한국이 세 척 보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도 1,000km에 달해 사드보다 멀리 관측이 가능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30일자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지표인 GDP와 국방비 모두에서 미국이 중국을 두 배 이상 압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게도 ‘자주적 외교’를 주장하다가 차제에 중국의 심기가 불편할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그 일관성 없는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시장’ 세대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와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안보 문제에서 민족은 감성적 논쟁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고자 한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음악의 도시, Vienna Austria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는 생전조약의 영향권이라 국경을 넘을 때 여권이 필요가 없다. 국경은 거의 없다 보아도 되고, 군사적인 것도 NATO로부터 상호보호 받는다. EU는 이제 단순히 같은 유로를 쓰는 경제공동체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United”가 되어가고 있다. 덕분에 물가가 점점 상향평준화 된다는 단점은 있다.

본격적인 중앙유럽에 왔다고 환영하듯, 비엔나는 친절했던 슬로바키아 보다 색감이 많다. 거리도 따뜻하게 느껴진다. 예약해둔 호스텔로 가는 길,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과 몸짓에서 나오는 기운이 공기 중에도 떠다니는 듯하다. 비엔나라는 도시는 잘 다듬어진 조각상 같다. 여신상이 번역거려 카메라를 꺼내니 국회의사당, 궁전인가 싶어 커다란 건물을 헤벌레 올려다보고 나니 시청사다.

비누방울을 쫓아다니는 아이들과 햇빛을 쬐는 사람들이 용기종기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의 한가로운 잔디밭을 지나쳤다. 이내 들어선 비엔나의 갤러리라, 그레첸 거리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그랜드피아노를 열연하는 피아니스트부터, 신기한 타악기로 시선을 끄는 집사들까지, 규가 즐거워 상점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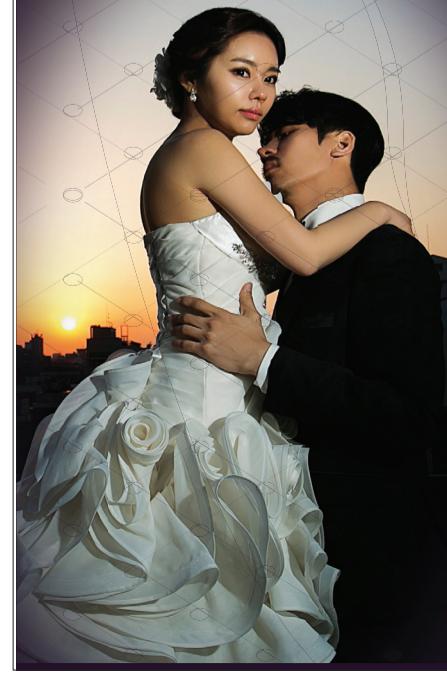
거리의 공기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그레첸 거리의 끝에 다다르니, 비엔나의 명물 ‘스테판 성당’이 기다리고 있다. 예술의 ‘예’자도 모르고 박물관은 박제된 인간 전시장이라며 피하는 나에게 조차, 서있는 모습만으로 감동을 주는 성당이다. 마침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광장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감성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종소리의 여운과 더불어 미사의 찬송가의 분위기가 광장의 인파를 사로잡았다.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은 성당을 기만히 버라본다. 여행이 길어지며 무뎌졌던 감수성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오르간연주에 이끌려 성당으로 들어서니 마침 카티콤투어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 곳은 가이드투어로만 들어갈 수 있다. 중세에는 왕실 무덤으로 쓰이다가 요즘엔 주교나 수도사들의 명면처가 되었다. 흑사병 유행했던 시기의 유골들로 쌓아 올린 벽도 있어 한층 으스스했다.

다음날은 비엔나의 왕궁. 제국의 상징. 천부른 궁전으로 가봤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호령했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거처였다. 더 재미있는 것은 루이16세와 비극적 운명을 같이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앙투아네트에게 고백했다 차였다는 것. 만약 그녀가 모차르트에게 갔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졌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페라하우스의 ‘Don Carlo’ 오페라를 보러 갔다. 클래식과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공연이 많고 보편화 돼있다. 입석은 3유로 정도면 서서 관람할 수 있었는데, 독일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대장치나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오페라로 귀정화를 하고나선 비엔나의 밤거리. 약간은 쌀쌀한 공기에 거리연주의 노래가 은은하게 실려온다.

나침술(상경·경제 09)

한국외국어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한기열 부대표 정외 94人)
(전용상담 02-3445-2557)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상” 수상

엔노블

고품격 노블레스 No.1

전문직/엘리트/상류층 성혼전문



친절하고 편안한 무료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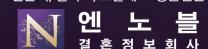
결혼정보회사

서울본사(狎鸥亭) · 부산지사(해운대 센텀)
미국동부(뉴욕, 플러싱, 맨하탄) · 서부(LA)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수준 높은 이성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프로필 안심 보증제-프로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국내 결혼증거와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50-16 상암빌딩 3~5층 |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월드타워 4006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외대

우리학교는 설립 이후 61주년동안 세계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며 진리, 평화, 창조의 이념 아래 많은 학생들을 키워왔다.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김현진 기자 90hyung1781@hufs.ac.kr

◆ 지역주민, 외대와 함께

과연 지역주민들은 우리학교의 시설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시설관리팀 문의 결과 학교 전반적인 부분의 이용은 제한적이긴 하나 지역주민이 일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관

양 배움터 도서관 모두 지역주민의 이용시간이라면 언제든지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출은 불가능하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도서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실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지참한 뒤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하루 평균 20~30명의 지역주민이 출입해 도서열람을 하고 있다. 열람실 이용은 글로벌배움터만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글로벌배움터 잔디구장이다.

시설

서울배움터는 아침에만 제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운동장으로 개방하고 그 외 시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돼있다.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시설 이용에 경제적으로 비용이 드는 만큼 일정 요금을 받고 있다.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백년관 잔디구장과 체육관, 소운동장이며 총괄지원팀에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양 배움터 모두 지역주민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배움터는 주로 밤에 나무계단, 잔디광장 같은 곳에서 쉬는 경우가 많다. 서울배움터에 자주 찾아오는 김춘숙(82·이문동)씨는 “벤치, 나무 쉼터 등을 잘 조성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글로벌배움터는 오르막이나 선형으로 형성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글로벌배움터에 자주 산책을 나오는 명윤호(21·모현면)씨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산책하러 다녔다”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에 좋은 학교”라고 말했다. 또한 인문경상관부터 용인 자연휴양림까지 태교관공숲길이 이번해 안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학교에서 용인 자연휴양림까지 숲길을 통해 갈 수 있다.



▲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배움터 잔디광장이다

◆ 지역사회와의 교류

상계고등학교

서울배움터는 상계고등학교와 수년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우리학교 사범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다문화적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각국의 전통, 음식, 영화 등의 내용을 해당 외국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 총 5명의 학생들이 1, 2학년 멘토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다.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김유진(사범·영교 13) 양은 “멘토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며 “나이 차이가 많아 나지 않아 친한 멘토가 돼줄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멘티들과 만나는 시간이 짧아 전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전해줄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현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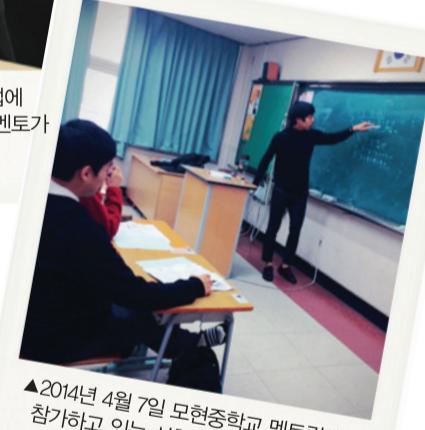
글로벌배움터에서는 모현중학교와 MOU를 체결해 멘토링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는 3월~6월, 9월~12월로 두 차례 나눠져 진행된다. 현재 총 17명의 멘토들이 활동 중이며, 영어는 13명, 수학은 4명이 매주 화요일 오후에 멘티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형찬(통번역·영어 11) 군은 “TESOL 영어 수업을 통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는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수준별 학교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모현중학교 멘토링 사업에 2년 동안 참가하고 있는 손인영(모현중학교·3학년) 양은 “무조건 공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점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교실에 두 그룹이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불편한 점도 있고 영어 멘토 선생님에 의해 수학 멘토선생님의 수가 적어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다” 아쉬워하기도 했다.

멘토링 사업은 해당 중·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모현중학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수강생이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멘토링 사업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모현중학교 멘토링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서형찬 멘토가 멘토링 참가 느낀점을 밝히고 있다.



▲ 2014년 4월 7일 모현중학교 멘토링에 참가하고 있는 서형찬 멘토가 멘티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다

◆ 소통하는 외대

시민인문대학 강좌

우리학교는 지난 61년동안 국내외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업적을 축적해왔고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를 일반 시민에게 환원하며 전문지식의 대중화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민인문대학 강좌가 있다.

시민인문대학은 시민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동대문 도서관과 협력하여 교내에서 우리대학 교수들이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 일본어대학이 주최해 처음 개설된 이래 매년 100여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강좌를 수료한 수강자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관련 도서를 증정한다.

2013년에 ‘인문학을 통한 일본 이해’라는 주제로 첫발을 내딛은데 이어 2014년 제 2회 강좌에서는 범위를 넓혀 ‘인문학을 통한 동아시아 소통’을 다뤘다. 주제가 확대된 만큼 강좌도 늘고 수강생도 증가했다. 이 강의를 수강했던 성북동에 거주하는 40대 이선영씨는 “한·중·일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주제로 나눠 강의한 내용이 좋았고 외대에서 강연해 오랜만에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고 전했다.

이번 1학기에는 중국어대학이 ‘인문학을 통한 중국과의 소통’이란 주제로 시민인문대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 중이다.

지난 2년간 시민인문대학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최재철 전 일본어대학장(현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은 “시민인문대학은 사회와 일반 시민에게 인문학을 확산시켜 전문지식의 대중화라는 과제를 실천하고,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만의 학교라는 담을 헤어 대학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대학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 2013년 시민인문대학의 첫 강좌인 '일본 문학으로 일본 읽기를 강의 중인 최재철 교수의 모습이다.



▲ 제 2기 시민인문대학 수료식 : 인문학을 통한 동아시아 소통

따뜻한 생활협동조합의 행보

글로벌배움터 생활협동조합은 서로 돋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사회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탄나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대학의 생활협동조합이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되고 지난 2013년 모현지역의 어려운 이웃 총 9가구에 사랑의 연탄 300장씩과 쌀을 전달한 바 있다.

이웃과의 협력과 소통에 대해 정진영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조합 설립 초기에는 학교 내 구성원 복지에 힘썼다면 지금은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생활협동조합에서 연탄나눔운동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나눔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4년 11월 13일 생활협동조합에서 주최한 연탄나눔운동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연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네르바 인문강좌,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들어 온라인에서부터 일상적인 대화에서까지 미네르바 인문강좌에 대한 불만은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미네르바 인문강좌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이와 관련된 학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미네르바 인문강좌란 무엇인가?'

우리학교는 2014학년도 2학기에 교양과정위원회가 승격하면서 '미네르바 교양대학'이 새롭게 출범했다. 본지 980호 3면 '2015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과정 개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양교육 강화의 방안으로 글쓰기를 미네르바 인문강좌로 개편했다. 미네르바 인문강좌는 기존의 글쓰기보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학생들의 교양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토론 위주의 수업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생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교양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교양교육의 강화로 우리학교는 인성교육은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네르바 인문강좌1:인간과 문명>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이 겸증된 사상가들의 고전 작품을 읽고, 문명·역사·과학·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학생 자신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에 대해서 배우려다보니 강좌의 주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 인문강좌는 크게 1학기와 2학기로 나뉘 각각 다른 주제를 배운다. 1학기에는 '인간과 문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2학기에는 '글로벌 소통과 배려'라는 주제를 학습한다. 이전에 글쓰기를 이수하지 않은 15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1학기 혹은 2학기 중 한 번 만들으면 된다. 하지만 15학번 이후 학생의 경우 1학기와 2학기 모두 수강해야 한다.

현재 강의 중인 <미네르바 인문강좌1:인간과 문명>의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과 최종리뷰,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우주, 인간, 생명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 △인간가치론: 행복론에 대해 △인간의 주체와 대상 △예술과 상상력 △인간과 역사 △문명과 종교 △과학적 지식의 발견 △민주주의와 정치 △자본주의와 시장 △이념, 이데올로기와 혁명 △동아시아와 한국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큰 틀에서 수업내용은 위의 커리큘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주제들로 정해져 있다. 기본적인 수업방식은 교수가 교재에 대해 강의를 하고 이후에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마무리는 글쓰기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방식의 큰 테두리만 정해진 것이지 구체적인 수업방식은 교수들의 개성과 자율을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실상은 교수마다 다른 수업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학생들에게 미움 받는 미네르바 인문강좌

본지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의 '미네르바 인문강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생 574명 중 43.73%에 해당하는 251명이 '매우 불만족'을 선택했다. 그리고 30.66%에 달하는 176명의 학생들이 선택한 '불만족'이 그 뒤를 이었다. 총 70% 가 넘는 학생들이 미네르바 인문강좌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마다 서로 다른 수업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과 고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의의 체계가 아직 덜 잡혀있고 미흡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미네르바 인문강좌를 수강 중인 정성윤(동유럽·루마니아 어 15) 군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지만 교재를 막 잘라붙인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며 "수업 방식에서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이해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수업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는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 내용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전체 497명의 응답자 중 188명이 '교재 미비 등 강의가 명확하게 짜여있지 않아서'를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37.83%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아직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고전읽기와 토론, 글쓰기를 동시에 진행해 너무 난잡하고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또한 본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강의 내용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34%에 해당하는 169명의 학생들이 '강의 내용과 주제가 매번 다르고 한 강의에 한 주제를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깊이 있는 강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를 선택했다.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과 단 3.8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수업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강생인 정재아(동양어·인도어 15) 양은 "수업에서 대부분 딱딱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을 배우는데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

강좌를 강의하고 있는 박선균 교수는 교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실제로 선정된 지문 중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다"며 "조금 더 쉽고 보편적인 주제로 텍스트를 선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고 쟁점화하기 힘든 지문들도 있는데 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지만 앞으로는 좋은 지문을 가려 뽑아 교재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지문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자료는 양 배움터의 미네르바 교양대학 학장과 미네르바 인문강좌를 강의하는 교수들, 그리고 주임교수들이 참석해 격주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선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업방식 통일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강의만 하는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그룹 토의와 발표를 시키고 이를 평가하는 강의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며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학생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미흡한 강의와 교재였다. 이러한 불만들에 대해 이 학장은 "한 학기 동안 여러 자료로 수업을 진행해보고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응을 듣고 수정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을 달랬다. 이어서 그는 "아무런 검토나 피드백 없이 교재를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해도 수정할 수 없다"며 "지금의 시행착오는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검토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수업방식이 다르다는 불평에 대해서는 "강의하시는 교수님마다 수업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방학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가능한 한 통일적인 수업 방식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이 어렵다는 학생들의 불만소리에는 단호했다. 이 학장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교양교과과 같은 강의를 듣게 되니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며 "하지만 어렵다고 교양강좌의 성격을 바꾸고 학생들과 타협해 교육을 쉽게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교의 인문강좌는 어떨까?

경희대학교의 경우 2011년에 교양대학인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개설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과과정은 △중핵교과 △배분이수교과 △기초교과 △자유이수교과 네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학교의 미네르바 인문강좌와 비슷한 교과과정은 '중핵교과'인데 1학년 1학기에는 '인간의 가치탐색'을, 2학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진행한다. 강의는 각각 3학점으로 3시간동안 진행되고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으로 이뤄진다. 우리학교 미네르바 인문강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초교과에 글쓰기 강의가 따로 분리돼 있다는 점과 인문사회계 학생들과 이공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점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1학년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인문교양 강좌에 '사고와 표현'이 있다. 사고와 표현은 체계적인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과목이지만 글쓰기 훈련에 고전 읽기를 연계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네르바 인문강좌와 유사하다. 1학기에 수강하는 <사고와 표현 I>은 글쓰기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2학기에 운영되는 <사고와 표현 II>는 강의 내용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개 영역으로 나눠 해당 분야의 다양한 읽기 자료와 글쓰기를 연계하고 토론도 진행한다.

두 사례 모두 미네르바 인문강좌와 같이 1학년 시기에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필수 교양이다. 두 학교 모두 인문강좌를 위한 정식 교재가 존재하고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 글쓰기와 토론 수업이 분리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강의 내용에 만족하는 이유 (응답자 수 167명)

- 1위 인문학 공부에 도움이되는 유용한 내용을 배워서 65명(38.92%)
- 2위 기타 44명(26.35%)
- 3위 강의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40명(23.95%)
- 4위 토론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18명(10.78%)

강의 내용에 불만족하는 이유 (응답자 수 497명)

- 1위 교재 미비 등 강의가 명확하게 짜여있지 않아서 188명(37.83%)
- 2위 강의 내용과 주제가 매번 다르고 한 강의에 한 주제를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깊이 있는 강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169명(34%)
- 3위 기타 85명(17.1%)
- 4위 강의 주제에 대한 가르치는 교수님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5명(11.07%)



정기자로서 한 학기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됐다. 그간 학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을 보고 들으며 기사를 썼다. 안타까운 사건도, 기쁜 사건도 많았으나 가장 기억에 남고 아쉬웠던 일을 꼽자면 과감히 이번 호에 실린 우리대학의 고위 학부모 조사에 관한 사건을 들고 싶다.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담임선생님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말인 '니아버지 뭐 하시노?'로 이 사건을 요약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기부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설명했지만,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학생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요 학부모를 선정한다는 것은, 공문에서 제시한 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요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느껴진다. 이 무슨 골품제의 복귀인가. 물론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있지만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단이나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교육적인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교는 학생을 이해관계에 얹매이는 존재가 아닌 학생 그 자체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대학 간 경쟁이 강화되며 대학이 발전기금 모금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득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할 때의 학부모에 이어 학생들도 계층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후 학교 측은 공문과 관련된 제안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번 사건에 관해 다른 매스컴의 영향은 취소될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알면 알수록 끝없는 문제가 나온다", "믿을 수 없는 학교"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비교적 늦게 접해 굉장히 당황스러운 채로 사건을 조사하고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학교가 굉장히 실수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뒤늦게라도 사과문을 올린 데에 있어서는 과실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뒷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학교 측이 학사 행정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어깨너머 듣는 교양

상거래질서와 규범

임채욱(미네르바 교양대학 · 상거래질서와 규범 강의)

보통 법에 대한 가장 흔한 명제는 "법은 어렵다"고, 법은 법률 기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을 소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법률 하면 형사소송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적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법률이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매우 특수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 형사재판은 매우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재판은 민사재판, 즉 상거래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판장에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전공자가 아닌 이상 형사재판 혹은 소송을 위한 법률을 자세히 알기보다는 사회생존을 위해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법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먹고사는 문제, 즉 사회생활에서 민법과 상법 및 그 특별법을 통해 구현된다. 본인이 필요한 법률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민법은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참여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라고 여기는 조건과 규칙을 법률로 만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딜 가나 유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니' 싶은 내용을 담은 조문도 많다. 사법부는 이렇게 상식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시장 경제의 정의를 추구한다. 그렇기에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체제로 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은 동일 가치의 교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교환물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의 발전이나 지역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 있지만, 동일 가치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법규범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제학기초, 경제사, 제도경제학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 시장자유주의의 한계와 정부의 시장 참여 효과라는 경제 활동의 기초도 다룬다. 오늘날 순수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모든 국가에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반영해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백하고 있고 실제로 수요 공급의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규범이 요구된다. 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래 정의를 보호(통제)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인 거래를 둘러싼 주요 법규 및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교양 수준에서 상거래 질서와 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사건과 법과의 관계를 학생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정지

검은 줄, 초록 줄 다시 찾아온 여름

더위를 식혀줄 단골손님 수박철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이 식료품점에 다시 찾아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수박, 땅이 더위가 찾아온 을 여름도 수박과 함께 보내길 바란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이 다시 찾아왔다. 빨간 속살 속 까만 점들을 발라내며 끈적거리고 달콤한 살들을 씹을 때 터져 나오는 육즙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절, 여름.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찾아온 계절과 같은 여름을 수박과 함께 제대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외대학보 100주년을 기원하며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우지원(일반 · 신문방송 14)

우선 한 사람이 태어나 환갑을 맞을 때까지의 긴 세월을 '곧은 펜'과 함께 묵묵히 걸어온 외대학보에 박수를 보낸다. 창간 60주년 특집호였던 982호는 외대학보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재미있는 기획들로 한층 그연륜을 뽐냈다.

역대 창간 특집호를 보며 외대학보의 발자취를 감상 할 수 있었던 1면과 축사를 통해 60년의 숨기쁜 여정을 짐작할 수 있었던 2, 3면 그리고 활자 속에 박재돼 있던 '외대학보 그때 그 사람들을' 생생히 되살린 6, 7면은 창간 특집호의 성격을 잘 담아낸 좋은 지면이었다.

그러나 기념비적 성격의 특집호에 걸맞지 않게 편집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사소한 오·탈자도 제법 눈에 띄었지만, 무엇보다 전혀 엉뚱한 단락이 삽입되는 중대한 편집오류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수입과자의 높은 인기를 분석한 기사는 외대앞역 거리에 수입과자전문점이 하나둘 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으나, 기사 중반에 엉뚱한 단락이 등장하며 다소 빛이 빠졌다. 신문 전체의 완성도를 위해 작은 부분도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집중력과 치밀함을 당부하고 싶다.

'지하철계의 문제아, 1호선'은 지하철로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참신한 기획이었다. 특히 716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불만족 사유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구성에서 기사에 쏟은 기자의 노고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해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길 바란다.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의 우리학교 방문 소식은 뉴스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비중 있게 실어도 좋았을 것 같다. 이번이 첫 내한이고 우리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칸디나비아를 가르치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획을 마련했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면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982호는 지난 60년 영육의 세월을 반추하는 소중한 특집호였다. 사람의 나이가 육십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해 이순이라 한다. 무엇을 들어도 막힘이 없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한다는 뜻이다. 외대학보도 막힘없는 논리와 거칠 없는 필력으로 100세 천수(千壽)에 이르기를 기원한다.

학생과 친한 학보를 기대하며

윤설(통번역 · 태국어 14)

사실 필자가 처음 창간 60주년 특집호인 982호를 받아 들었을 때 느낀 점은 1면의 제목과 1면 자체의 느낌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다. 1면의 제목은 외대학보의 60주년을 축하하며 성대한 환갑잔치가 열릴 예정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실제로 학보를 보았을 때 축하를 한다는 느낌이 아닌 그자 학보의 발자취 정도를 보여준 느낌이었다. 제일 아쉬운 점은 학보의 60년 그 자체만을 축하하기보다는 60년의 역사를 거친 학보가 부족한 점, 또는 나아갈 방향 등을 같이 기술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60주년을 맞은 새로운 학보의 상징을 설명한 점은 좋았다. 학보의 상징 또한 설명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2, 3면의 축사와 6, 7면의 기획을 보면서 필자는 꽤 많은 점을 느꼈다. 축사보다는 기획 면이 외대학보의 역사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잘 파악한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획면은 과거의 외대학보에 함께한 선배들이 창간 60주년을 축하하며 아쉬운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과거와 비교하여 기술한 것이었는데, 학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쓴 축사보다는 기획이 더 이번 호에 뜻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기획 면이 앞쪽에 위치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면에 있는 홍콩의 노란 우산 이야기는 저술자가 설명하려는 의도에 맞게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기사는 우산혁명과 관련한 홍콩의 이야기를 한 글에 잘 녹였다. 제목을 읽으면 노란 우산이 무엇인가 궁금해지게 한다. 필자는 이 기사와 맞게 학보의 기사들이 제목을 읽으면 누구든 궁금해지게 하여 이 기사를 기꺼이 읽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굉장히 국제적 교류가 많고 외대라는 이름과 학보의 국제 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이 페이지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필자는 6, 7면의 기획 면을 읽으면서 현재 외대학보의 기자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대학보와 관련이 없는 필자가 읽어도 인생에 도움이 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학보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점들이 신기하게도 많이 기재되어 있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문 자체가 많이 변했거나와 사람들의 신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외대학보와 외대 학우들 사이가 친밀하고, 학보 구성원들이 학우들에게 영향력 있는 학보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승과 제자

▲ 2014년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부임해 한화 이글스를 이끌고 있는 김성근 감독은 선수를 부를 때 꼭 '아이'라고 부른다. 한화 이글스 부임 전 그가 이끌었던 고양 원더스의 출범부터 팀의 해체까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파울볼〉에서 김 감독이 왜 '아이'라고 부르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프로 진출에 실패한 뒤 마지막 기회였을 고양 원더스가 해체되자 갈 곳이 없어진 선수들을 위해 한 팀 한 팀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처세를 잘 했더라면 선수들을 여기저기 보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노감독의 모습에서였다. 선수들 또한 감독님이 계시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믿으며 힘든 훈련도 마다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 스승의 날을 맞아 곰곰히 생각해보면, 요즘 스승과 제자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부모와 스승이 베풀어준 은혜가 같다고 한다. 스승의 가르침에 마치 나를 이 세상에 넣어준 것과 같은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꽂아드리듯,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으로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말이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 사실 언젠가부터 사제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실리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학원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조차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라며 친구들끼리 속닥거리는 일이 많



The diagram shows a 10x10 grid of cells. The cells are shaded in two patterns: a vertical column of 10 cells from (1,1) to (1,10), and a horizontal row of 10 cells from (1,1) to (10,1). All other cells are unshaded. Numbered circles indicate specific points: (1,1) is red, (1,2) is red, (2,1) is blue, (2,2) is red, (3,1) is blue, (3,2) is red, (4,1) is red, (4,2) is red, (5,1) is blue, (5,2) is red, (6,1) is blue, (6,2) is red, (7,1) is red, (7,2) is red, (8,1) is blue, (8,2) is red, (9,1) is blue, (9,2) is red, (10,1) is blue, (10,2) is red, (1,10) is red, (2,10) is red, (3,10) is red, (4,10) is red, (5,10) is red, (6,10) is red, (7,10) is red, (8,10) is red, (9,10) is red, (10,10) is red.



사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5월은 꽃들이 만개하고 나무가 우거지는 신록의 계절이다. 봄기운과 함께 '가정의 달'이 돌아왔다.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일이 집중돼 있다. 캠퍼스도 스승의 은혜 노래 소리, 부모님을 위한 카네이션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다. 바야흐로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가장 풍요로운 달이다. 이 좋은 5월이 금주를 고비로 하순으로 간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

각박한 세상에서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다. 가정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안식처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대화의 단절 때문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가족의 대화 시간은 1시간 이내라고 한다. 대화가 사라지며 가정이 삭막해지고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없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서도 자신의 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개인시간을 가진다.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가족간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외대인들의 가정은 어떠한가? 공부, 동아리, 취업 준비 등 바쁘다는 평계로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항상 곁에 있기에 고마움을 잊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 영원한 내 편은 가족이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점차 늘려가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가족은 더욱 끈끈해질 것이다. 가족간 소통과 교감이 가득한 따뜻한 5월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사제도, 변화 이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우선돼야

우리학교는 몇 년 사이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다. 2013년 동양어대학과 서양어대학을 광역화로 바꾼 데 이어 LD학부, LT학부 등 융복합학문을 중심으로 학부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이번 해 사범대학에는 중국어교육과, 글로벌배움터에는 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며 프랑스어과는 학부 체제로 개편된다.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졸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했던 글쓰기 대신 미네르바 인문강좌가 새롭게 등장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서, 또 점점 치열해지는 대학 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조금 더 우수한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단행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LD학부와 중국어 교육과 신설 과정에서 일어났던 학교와 학생 간 대립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광역화 모집을 통해 서양어대학과 동양어대학에는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했지만 여러가지 혼란을 겪었고 2016학년도부터는 그전처럼 학과제로 돌아간다. 5면 보도처럼 미네르바 인문강좌도 취지는 좋았지만 학생과 교수가 모두 혀등지등 한 학기를 보내기에 급급하다. 그 필요성이나 목적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과정이나 결과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다. 학교가 철저하게 계획해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했더라면, 학생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더 잘 풀릴 수도 있었던 일들이 꼬이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생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변화는 필요하다. 머물러 있으면 뒤처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련의 개편들을 지켜보며 무조건 바꾸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변신을 시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대학에 비해 앞서가려 시도하는 변화인만큼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방향 설정,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외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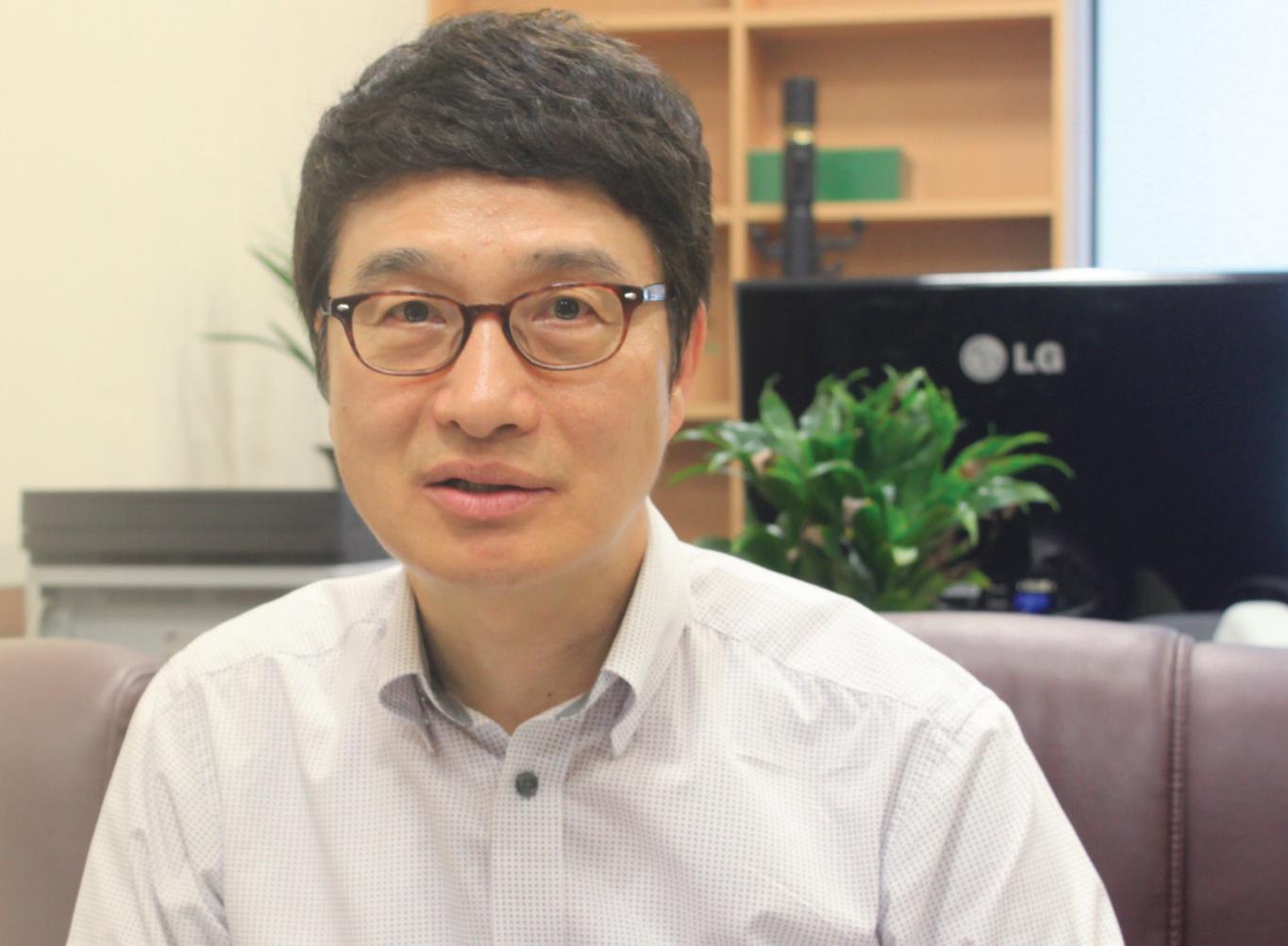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장 김다정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buftspress.net

박홍수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

2009년 10월 31일에 개원한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의 두 번째 원장이 취임했다. 바로 박홍수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다.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의 수장을 맡은 그의 이야기와 다짐을 들어봤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스스로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Q. 이번에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어떤 임무를 맡았나?

A. 공자아카데미의 설립 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중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과 중국 간 활발한 문화 교류의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공자아카데미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이다.

개인적으로 학교 내의 기관장을 맡았을 때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한다. 첫 번째는 내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이 학교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기관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 것인가이다. 이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중국어 교육의 보급과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문화 교류라는 공자아카데미의 설립 취지를 이행해나갈 것이다.

사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교류한지는 정말 오래 됐다. 중국과 수교를 맺은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깝고도 먼 이웃처럼 서로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소통에서 서운한 감정이나 사소한 오해들이 생긴다.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교류 등을 더 연구해 이러한 점들을 풀어주는 공자아카데미가 됐으면 한다.

Q. 공자아카데미가 일반적인 중국어 학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일반적인 중국어 학원과의 공통점은 언어 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어의 보급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히 진행한다. 현재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학교는 북경외국어대학교(이하 북경외대)다. 그래서 북경외대와 협력해 문화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다른 중국 기관들이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문화 교류를 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대학교 교류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교류도 도와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경시대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중국문화 특강, 저명인사 초청, 서예와 전각 전시회 같은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또 다른 점은 학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기관이지만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영리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 산하의 중국어 담당 사무처인 '국가한어판공실'이 있는데 그 곳에서 매년 공자아카데미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학교 공자

아카데미에서 중국어 교육 보급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아카데미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총장님과 함께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고, 중국 대사와 교육참사가 공자아카데미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사관을 통한 공식적인 교류도 자주 이뤄진다. 이렇듯 중국어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어 교육이나 문화 행사들을 비영리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 입장에서 도와주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Q.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공자아카데미를 개원하고 운영하고 있다. 타 대학들의 공자아카데미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만의 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사실 공자아카데미의 설립 원칙에는 시와 도 같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한 개의 공자아카데미만 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한 곳과 이외의 지역에 하나씩 위치해야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원칙이 깨져 현재 서울에 서울공자아카데미(강남구 역삼동),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총 세 곳이 있다. 나머지 공자아카데미는 지방에 존재하는데, 지방에 위치한 공자아카데미와 서울에 위치한 공자아카데미는 파급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지방은 언어 교육 측면에서 그 지역의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 많고, 실제로 중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공자아카데미는 언어 교육보다 문화 교류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의 경우 질 좋은 수업 외에도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공자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 한어수평고시(HSK)에서 일정한 등급 이상을 얻으면, 추천을 통해 어학연수와 한어국제교육 석사 과정 학생을 1년에 각각 15명 정도 중국으로 파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을 우리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또한 지방대학이 하기 어려운 전국적인 행사도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우리학교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메이저 대학에 속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연합이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 하나의 예로 6월에 중국인 교사들의 전체 모임이 우리학교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중국인 교사들의 수는 전국에 몇백 명이나 된다. 교사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박 이일간의 행사를 세 차례 나눠서 할 예정이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과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과 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번학기에는 70명 정도가 공자아카데미에서 수강 중이다. 강좌는 9개 개설돼 있고 한 반에 적으면 7명에서 많으면 15명이 수강한다. 외부인에게도 개방은 하지만 수업 시작 전인 오전과 수업이 끝난 오후에 강의가 개설돼 있어서 외부인 수강생이 많지 않다. 대부분 우리학교 학생이거나 교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강료 할인이 되고 출석률이 좋으면 수강료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돌려받으니 일석이조다.

Q.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세워진 기관인데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는가?

A. 중국 정부에서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에 북경외대 교수와 학생들을 보내준다. 그래서 현재 북경외대 교수가 부원장 자리를 맡았고 또 다른 두 분은 교사로 있다. 그리고 북경외대에서 중국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 6명도 교사로 실습을 와 있다. 또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경비 지원을 해주고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도 요청을 하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지원하는 장학 혜택에는 학비 면제, 기숙사 제공, 의료보험 제공, 매월 40만원 정도의 생활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원자가 많지 않다. 박원장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 내내 당부했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는 연간 12번의 한어수평고시(HSK)도 주관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국은 중국과 이웃국가이면서 상호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다.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 기회는 많은 편이다. 중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학생들이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잘 이용해서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2015학년도 봄 학기 중국어 강좌

	월	화	수	목	금
8:00-8:50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10:00-12:00		[新HSK] 4급, 5급 6급		[新HSK] 4급, 5급 6급	
10:00-11:30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18:00-19:30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문화] 중국어로 배우는 서예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문화] 중국어로 배우는 서예	[회화] 입문, 초급, 중급, 고급
18:00-20:00		[회화] 비즈니스 회화		[회화] 비즈니스 회화	[新HSK] 4급, 5급 6급

장학생 어렵지 않아요!

(미달~15명 지원 가능 / 10명 지원)

지원 자격은 중국어 강좌 한 학기 이상 수강자, HSK(필기 시험) 3급 180점 이상 및 HSKK(회화 시험) 초급 50점 이상 소지자로 매우 어려운 편이 아니니 중국어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중국어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 중국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미달~15명 지원 가능 / 2명 지원)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한어국제교육 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원 자격이 학사학위 소지자, HSK 5급 180점 이상 및 HSKK 중급 50점 이상 소지자로 더 어렵긴 하지만 매년 15명씩 선별하므로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매년 지원자가 미달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지원자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북경외대에 가고 싶은 영남대학교 학생이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 장학생 모집에 지원해 장학생으로 파견됐다.